

북한의 어음연구

최 명 옥

1. 들어가기

해방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국어의 어음¹연구는 연구 주제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해방 이후에서 1959년까지를 한 단위로 하는 제1기와 1960년에서 1965년까지를 한 단위로 하는 제2기, 그리고 1986년에서 현재까지를 한 단위로 하는 제3기가 그것이다.² 제1기는 매우 긴 기간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1949년과, 1956년에서 1959년까지인 5년간으로 이 시기에는 고대국어나 중세국어의 어음, 어음체계, 어음현상이 주된 관심사가 된 시기이다. 이와는 달리, 제2기는 현대국어의 어음체계, 어음교체, 억양, 악센트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된 시기이며 제3기는 제1기와 제2기의 주제들과 함께 실험 음성학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기이다.³

¹ 여기서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음운’ 대신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음’이라는 술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맑스주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추상적 단위인 ‘음운’이 아니라 사상 표현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는 말의 소리인 ‘어음’이다. 이러한 어음의 체계 및 어음의 변화의 법칙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어음론’이다. 어음론의 단위는 ‘소리동강(=文), 소리매듭(=절 또는 구), 소리토막(=성분), 소리마디(=음절)’ 등으로서 음성적인 것이다(리동빈·양하석(1986: 262-65, 280-85)). 그러므로 그러한 연구를 ‘음운 연구’ 또는 ‘음운론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종래의 북한의 ‘어음론적 연구’를 평가하는 글에서 ‘어음’을 ‘음운’으로 改稱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신지영(1991), 박영준(1991) 등 참조.

² 제2기와 제3기 사이의 약 20년간은 문화어 보급시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학술적인 어음연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³ 이러한 어음연구의 시기 구분은 북한의 국어연구사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는, 金敏洙(1991)에서와 같이, 綴字改革을 기준으로 하여, 「통일안」시대, 「철자법」시대, 「규범집」시대, 「새규범」시대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綴字改革은 言語政策史를 논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학문으로서의 국어연구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들 시기에 진행되어 온 북한의 어음연구의 경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북한의 어음연구에 대하여는 매우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신지영(1991)이 그것이다. 신지영(1991)은 金敏洙(1991)에 제시된 네 시기(「초창기(1945-1954)」, 「전엽기(1954-1966)」, 「조성기(1966-1987)」, 「합성기(1987-)」)를 중심으로 각 시기 동안에 발표된 어음연구 논저들을 역사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로 분류하여 각 논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기술한 것이다.⁴

신지영(1991)은 위의 각 시기를 단위로 하여 그 시기에 이루어진 어음연구 논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 기술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어서, 북한의 어음연구의 경향을 밝히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논문은 田蒙秀의 “訓民正音의 音韻組織(1949)”(pp. 24-25)이나 김영황의 “〈훈민정음〉의 음운 이론(1965)”(pp. 31-32) 등과 같은 국어학사면의 논문, 리달선의 “읽기에서 발음지도(1970)”(p.52)나 김윤교의 “받침소리의 발음지도(1984)”(p.51) 등과 같은 비학술적인 글들까지를 모두 어음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순수한 북한 어음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을 순수 학술적인 어음연구의 논저에 한정시키며, 그것들을 어음체계, 어음변화, 어음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는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북한의 어음연구의 경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2. 어음연구의 경향

2. 1. ‘음운론’과 ‘어음론’의 개념과 방법

북한의 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음론’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음운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어음연구의 경향을 이해하기 전에 ‘음운론’과 ‘어음론’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음운론’과 ‘어음론’의 대상이 되는 ‘음운’과 ‘어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음운’의 개념은 초기에는 <단어의 어음적 외피(=음성형)의⁵ 측면에서 단어를 구별하여 줄 수 있는 최소의 어음 단위(원응국(1961a: 22))>라

⁴ 그러나 신지영(1991: 23)에 의하면, 마치 어음론 연구를 위와 같이 네 시기로 나누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金敏洙(1991a)에 수록되어 있는 상당수의 글에서도 동일하다.

⁵ ‘A(=B)’에서 B는 A에 해당하는 술어로서 필자가 제시한 것임. 이하 동일.

고 규정되었으나 한영순(1965: 3)에 따르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음성들이 가지는 구별적 표식 또는 본질적 속성(=변별적 자질)의 묶음이고 그 기능에 있어서는 의미를 가지는 언어적 단위 즉 형태부나 단어 등을 형성하고 구별하는 물질적인 언어 단위>라고 규정된다. ‘음운’의 기능에 대한 견해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최소의 음성 단위가 아니라 ‘변별적 자질의 묶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음’의 개념은 <사람의 발음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음파가 청각에 반영된 것(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11))>이라고 규정된다. 여기서의 ‘음운’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즉,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또는 변별적 기능을 가지는) 최소의 음성 단위라는 개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여기서의 ‘어음’은 ‘말소리(음성)’ 즉 ‘언어음’(speech sound)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음운론’과 ‘어음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田蒙秀(1949a: 14)는, ‘음운론’은 <음운이 현재의 어떤 존재 조건 아래서 어떻게 작용하며, 시간적으로 하나의 단위음(=음운)이 다른 어떤 단위음으로 推移하고 있으며, 또는 형태부(=형태소)와 형태부의 통합에서 그 단위음이 어떤 음형태로 표현되는가 등, 음운의 여러 가지 현상과 운동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류응호(1956a: 87)는 <어음론의 일부분으로서 구체적인 어음이 나오는 환경과 어음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영향 그리고 각개 어음의 의미 차별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사회적 본질에 착안해서 어음을 연구하는 부문>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전자의 규정에서는 음운론의 연구 대상이 ‘음운’인 데 대하여, 후자의 규정에서는 그것이 ‘어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규정에서 ‘음운론’을 ‘어음론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음성학’과 ‘음운론’을 포괄하는 것이 ‘어음론’임을 알 수 있다. 이 ‘어음론’은 195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田蒙秀(1949a-c) 이후로, 북한에서 발표된 논저의 명칭에 ‘음운론’이란 단어가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알려 준다. ‘어음’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실재이므로,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어음론’이야말로 唯物論과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류응호(1956a: 80)에서 볼 수 있는 “언어로써 표현되는 사상은 음성이란 《언어적 물질에 기초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어음은 사상 표현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어음론’은, 류응호(1956a: 80)에 의하면, <언어의 어음체계 및 변화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즉 언어를 구성하는 자료의 방면으로부터 이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라고 규정된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 대하여, 田蒙秀(1949a: 17)는 음운론의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음운론의 연구방법은 맑스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변증법은 사물과 현상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관련되며 제약되는 그러한 상호 연관적 통일적 전체로 본다. 마찬가지로 음운론에서 1) 모든 음운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라면, 음운에 의한 모든 현상과 운동은 그것을 관련시키는 제조건의 전지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언어에서 2) 한 음운이 기울어지는 방향은 다른 음운의 방향에 의하여 공동규정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 음운의 변화는 분절총체(=음운체계)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 음운의 변화는 다른 음운의 相伴的 變化를 예정한다.

여기서 1)은 <언어는 전적으로 구체적인 요소들의 대립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이며(p.107), 언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는 체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체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비로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 의미와 가치는 오직 체계 속에서 대립을 이루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결정된다.(pp.115-22)>는 Saussure (1959/16: 107-122)의 구조언어학의 근본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2)는 <음운변화는 그 언어의 체계 속에서의 그 역할을 밝힘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단 음운변화가 일어나면, 음운체계 속의 무엇이 변하였는가, 어떤 음운론적 차이가 상실되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음운론적 차이가 생겼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만약 음운론적 대립의 목록은 바뀌지 않았다면 개별적인 대립의 구조가 바뀌었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대립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또는 그것의 변별력에서 어떤 대립의 위치가 변하였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체계 속의 각 음운 단위들은 해당 음운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그 후의 체계를 이루는 모든 다른 단위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崔明玉(1989: 126-27))>는 프로그언어학의 통시음운이론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음운론’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어음론’의 연구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없다. 위의 ‘어음론’의 개념에서 ‘어음체계 및 변화의 법칙’이라는 표현과 국어 어음론을 다룬 류응호(1956b-d)를 고려하면, ‘어음론’의 연구방법은 위의 ‘음운론’의 연구방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어음 체계

여기서는 국어의 어음체계에 대한 연구를 고대국어와 중세국어 그리고 현대국어로 나누어 고찰하며, 개별 어음에 대하여는 각 시대별 어음체계의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먼저 고대국어의 어음체계에 대한 논의는 홍기문(1949)와 류렬(1958a, b)에서 발견된다. 이들 논문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 기록된 지명, 人名, 관직명, 왕호와 약간의 金石文字를 대상으로, 대상 漢字에 古代 漢字 音を 적용함으로써 고대국어의 어음체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홍기문(1949: 50-52)는 고대국어의 어음체계 중 자음체계에는 삼지적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모음체계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등의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받침은 外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류렬(1958a, b)의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그에 의하면, 고대국어의 자음체계는 평음(ㅏ, ㅑ, ㅓ, ㅕ, ㅗ, ㅛ)과 유성음(ㅑ, ㅓ, ㅕ, ㅗ, ㅛ)으로 이루어졌으며 ‘ㄷ’은 동요 상태에 있었고 ‘ㄹ’은 초성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후두 마찰음 ‘ㅎ’은 ‘ㄷ’에서 변화하는 과도 상태에 있었다(류렬(1958a: 19))고 한다. 그리고 모음체계는 다섯 개의 모음(ㅏ, ㅑ, ㅓ, ㅕ, ㅗ)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이루는 ‘ㅜ’와 ‘ㅡ’는 각각 ‘ㅓ, ㅑ’와 ‘ㅕ, ㅗ’의 변종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자립적인 음운으로까지는 되지 않았고, ‘ㅏ, ㅑ, ㅓ, ㅕ, ㅗ(-)’는 이중모음도 아니었고 단모음도 아니었다(류렬(1958b: 6))고 한다.

류렬(1958a, b)에서 말하는 ‘상고 조선말’은 7세기 이전의 국어를 말한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언어가 서로 달랐음을 전제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 언어의 통일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고대국어의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7세기 이전의 국어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의 언어가 방언적인 차이를 가졌을 뿐, 근본적으로는 동일하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의 견해는 示唆하는 바가 많다.

중세국어의 어음체계는 김영황(1959a)에서 논의되었다. 이 논문은 15세기를 자음 구성 변화의 과도기로 보고, 자음 구성의 변화와 그 체계의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함으로써 국어 자음체계의 역사적 발달에서 기본적인 특징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15세기 국어의 자음체계는 17개의 자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ㅡ, ㅜ, ㅡ; ㅏ, ㅑ, ㅓ; ㅑ, ㅓ, ㅕ; ㅏ, ㅑ, ㅓ; ㅑ, ㅓ, 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ㅏ, ㅑ’과 ‘ㅓ, ㅕ’를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된소리를 체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ㅏ, ㅑ’이 독립된 음운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보니(美) : 고브니(直), ㅏ시니(際) : ㅑ시니(初)’ 등에서와 같이 ‘ㅏ’와 ‘ㅑ’, ‘ㅓ’와 ‘ㅕ’가 구별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 29, p. 35). 최근에 렬종률(1987, 1988)은 ‘ㅏ, ㅑ’는 음운이 아니라 음운의 특수한 표기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앞에 제시된 단어에서 보이는 대립이나 현대국어의 ‘ㅏ, ㅑ’변칙동사의 존재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김영

황(1959a)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⁶ 그러나 된소리를 체계에서 제외시킨 것은 옳지 못하다.⁷ 이 논문은 위에 설정된 자음들의 상관적 대립을 7개의 표식(비음, 파열, 대기, 유음, 파찰, 유성, 조음위치<여기에는 ‘양순, 전설, 후설, 성문’ 표식이 포함된다>))에 의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논의 방식과 논의에 사용되는 ‘자음체계, 상관, 상관표식, 대립, 상관적 대립’과 같은 술어로 미루어,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현대국어의 어음체계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 중 자음체계에 대하여는 류응호(1956b), 김영황(1959b),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신정아(1963), 한영순(1964b) 등의 논의가 있으며, 모음체계에 대하여는 류응호(1956b),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한영순(1964b), 김성근(1987) 등의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를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음체계에 대하여, 류응호(1956b)는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중심으로 국어의 자음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p. 106-107). 즉, 파열음(양순 파열음: ㅂ<평음>, ㅍ<유기음>, ㅃ<경음>, 전설 파열음: ㄷ, ㅌ, ㄸ, 후설 파열음: ㄱ, ㅋ, ㆁ; 유향음(=유성음): ㅁ<양순>, ㄴ<전설>, ㅇ<후설>), 파찰음(전설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전설 마찰음: ㅅ, ㅆ, 인두 마찰음: ㅎ), 전음(측음: ㄹ, 전음: ㄷ)이 그것이다.⁸

‘평음, 유기음, 경음’과 같은 대립이 있는 경우에, 각 평음 뒤에 ‘유성음은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상의 분류는 자음체계를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중심으로 한 자음의 분류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조음위치로서 수동적인 조음기관인 ‘치경, 경구개, 연구개’ 대신 능동적인 조음기관인 ‘혀’를, ‘후두’ 대신 ‘인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치경음’과 ‘경구개음’이 모두 ‘전설

⁶ 예컨대 李基文(1978/72: 130)을 참조할 것. 차이가 있다면, 김영황(1959a: 33)은 ‘ㄸ’을 ‘ㄱ’의 마찰음으로 보는 반면, 李基文(1978/72: 130)은 그것을 ‘ㅎ’의 된소리로 본다. 김영황(1959a: 33)은 ‘ㄸ’이 ‘ㄱ’의 무성 마찰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ㅃ’을 ‘ㅂ’의 무성 마찰음으로 보고, ‘ㅅ’, ‘ㄸ’과 같은 계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15세기의 ‘ᄃ-ᄃᆞᆫ’이 17세기 문헌에 ‘ᄃᆞᆫ’로 표기되어 있고, ‘ㅅ’ 합용병서(ㅅ, ㅆ 등)가 된소리의 표기임(李基文(1978/72: 123-24))을 감안하면, ‘ㄸ’은 ‘ㅎ’의 된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⁷ 15세기 국어에서 된소리가 음소로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는 李基文(1978/72: 123-24, 132)를 참조할 것.

⁸ 자음 분류표(p. 107)에는 ‘ㅎ’이 파찰음으로, ‘ㄷ’이 마찰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분류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음'으로 되어 그 둘의 구별이 없어진다. '양순'과 '인두'와 일치되게 능동적인 조음기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이라 하겠지만, 음운현상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러한 기준 설정에는 문제가 있다. 예전대, '혁'을 기준으로 하면, '다-(落)'와 '지-(擔)'에서 '다'가 '지'로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ㄷ'과 'ㅈ'은 동일한 전설음으로 이 경우에는 전설모음 '이'에 의한 역행동화라는 구개음화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하면, 다른 자음들에 대하여는 변이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ㄷ'에 대하여는 '측음'과 '전음'을 구별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두 음이 음소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구별은 일관성을 결한 것이 된다.

김영황(1959b)는 능동적인 조음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자음을 분류하는 것이 해당 자음의 조음적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p. 26)고 전제하고 류용호(1956b)와 동일하게 자음을 분류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어에 대한 소련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w와 j가 국어에서 음운이 될 수 없으며(p. 29) 이극로(1949: 28, 조선어 음성학)에서 음운으로 인정된 성문 폐쇄음 'ʔ(ㅎ)'의 존재를 부정한다. 'ʔ'는 국어에서 다른 음운과 달리 지각되지도 않으며 시차적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시 분류된 자음들에 대한 위치적 변종(=변이음)과 자음들의 상관 관계 그리고 자음 체계의 특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자음들에 대한 위치적 변종은 '어두, 모음과 모음사이, [...], 어말' 등으로 환경을 구분하여 고찰하고 자음들의 상관 관계는 일곱 개(기식, 성문폐쇄, 파찰, 파열, 비음, 유음, 조음위치)의 표식에 의한 음운론적 대립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1) 조음 방법에 의한 조음적 차이가 음운론적 대립을 조성하는 반면에 조음점의 미세한 이동은 그렇지 못하며, 2) 일곱 개의 표식에 의한 음운들의 상관적 대립이 존재하고, 3) 'ㄷ'과 'ㅇ[ŋ]'은 어두에, 'ㅎ'은 어중이나 어말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현대국어 자음체계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음운론적 대립을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조음위치'라는 것이 다른 표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 이외에 위치적 변종을 분포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은 미국의 기술언어학적인 것이며, 일곱 개의 표식에 의한 대립으로써 자음들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방법은 김영황(1959a)의 중세국어 자음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적 방법이라 할 것이다.

신정아(1964)는 상관적 표식을 중심으로 자음체계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영황(1959b)와 전혀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에 설정된 상관적 표식이 일곱 개인 데 반하여, 전자에 설정된 것은 아홉 개(소음, 악음; 비음, 유음; 조음위치; 폐쇄, 접근; 파찰, 파열)라는 점이다. 무성자음과 유성자음의 대립은 두 개의 표식 '비음'과 '유음'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순전히 '소

음'과 '악음'만으로 음운현상이 설명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들 표식은 잉여적이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간의 대립은 '파열'과 '파찰'의 두 표식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으므로, '폐쇄'와 '접근'의 표식 또한 잉여적이다. 그러므로 적은 수의 표식으로써 모든 자음 대립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황(1959b)의 제안이 낫다고 하겠다.

그리고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은 네 가지 기준 즉 1) 소음과 성대음의 참가, 2) 소음이 이루어지는 위치, 3) 소음 조성 방법, 4) 기음과 후두떨패 과정으로 나누어 자음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자음체계는 류용호(1956b)나 김영황(1959b)에 제시된 것과 대체로 같으나, 이들 논문에는 'ㅎ'이 '인두음'으로 되어 있고, 'ㅈ, ㅊ, ㅊ'과 'ㅅ, ㅆ' 및 'ㄷ'이 'ㄷ, ㅌ, ㅌ; ㄴ'과 함께 '전설음'에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하여,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에는 'ㅎ'이 '후두음'로 되어 있으며, 'ㄷ, ㅌ, ㅌ; ㄴ'이 '전설음' 중 '치음'에, 'ㅈ, ㅊ, ㅊ'과 'ㅅ, ㅆ' 및 'ㄷ'은 '전설음' 중 '전구개음'에 포함되어 있다. 'ㄷ, ㅌ, ㅌ'의 조음점을 'ㅈ, ㅊ, ㅊ'과 구별한 것은 그들 간에 다르게 실현되는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발전한 것이라 하겠으나 'ㅅ, ㅆ; ㄷ'은 조음점이 'ㅈ, ㅊ, ㅊ'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 '전구개음'으로 포함시킨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위에 제시된 자음체계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한영순(1964b)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로, 그 전까지는 어음의 속성들을 조음 생리학적 면에서 찾으려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와 함께 음향학적 면에서 어음의 속성들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 전까지는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를 분리하여 고찰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둘을 하나의 체계로 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그 전까지는 어음분류의 기준과 체계 설정의 기준을 분리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음운론적 시차적 표식들을 통하여 그 둘을 하나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홉 개의 음운론적 시차적 표식(=변별적 자질)에 의하여 설명된다. 아홉 개의 음운론적 시차적 표식은 ① 입술의 참가 여부, ② 혀의높이=소리의 밝기,⁹ ③ 조음의 단일성 여하=색채존재의 여부, ④ 모음성(이상 모음과 자음에 공통적인 것), ⑤ 혀의 높낮이=소리의 깊이(모음에만 고유한 것), ⑥ 장애의 성격, ⑦ 콧소리 여부, ⑧ 기식의 가담 여부, ⑨ 성문의 가담 여부(자음에만 고유한 것)이다. 이들 표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자음 또는 모음을 대립시킨다. 즉, ①은 원순모음:비원순모음; 양순음:그 외의 자음, ②는 전설모음:후설모음:중설모음; 전설자음:후설자음, ③은 홀모음:겹모음; 기본 자음(ㅂ, ㄷ, ㅈ, ㅅ, ㄹ, ㄱ, ㅎ):기타 자음, ④는 모음:자음, ⑤는 양성모음(ㅣ, ㅜ, ㅛ):음성모음(ㅓ,

⁹ A=B에서 A는 조음 생리학적 표식이고 B는 음향학적 표식임. 이하 동일함.

ㅏ, ㅑ, ㅓ, ㅕ), ⑥은 막는소리(=폐쇄음)(ㅂ, ㅃ, ㅍ, ㅍ; ㄷ, ㄸ, ㅌ, ㄴ; ㄱ, ㄲ, ㅋ, ㅇ): 좁히는소리(=마찰음)(ㅅ, ㅆ; ㅇ): 막았다가 좁히는소리(파찰음)(ㅈ, ㅉ, ㅊ): 흘림소리(=유음)(ㄹ), ⑦은 콧소리(=비음): 입소리(=구음), ⑧은 순환소리(=평음): 거센소리(=유기음), ⑨는 순환소리: 된소리를 대립시킨다. 이러한 대립에 의하여 국어의 음운에는 모음적 음운 11개, 자음적 음운 19개, 반모음적 음운 2개를 포함하여 모두 32개가 있다고 한다(p. 3).

위에서 ①, ③, ⑥, ⑧, ⑨는 음운론적 시차적 표식(=변별적 자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시된 아홉 개의 표식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실제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매우 새로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의 어음론에 생성음운론이 도입되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체계로 하여 그것들을 구별시키는 자질을 설정하거나 국어의 음운을 ‘모음적 음운’, ‘자음적 음운’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준다.

현대국어의 모음체계는 류응호(1956b)와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그리고 한영순(1964b)과 김성근(1987)에서 모두 10 모음체계(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모음이 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모두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입술모양에 의한 모음의 구별에도 부분적으로 불일치를 보인다. 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류(1956b)	과학원(1960)	한(1964b)	김(1987)
전 설	ㅣ, ㅓ, ㅕ, ㅑ, ㅗ	ㅣ, ㅓ, ㅕ, ㅑ, ㅗ	ㅣ, ㅑ, ㅓ	ㅣ, ㅓ, ㅕ, ㅑ, ㅗ
중 설	ㅏ	ㅡ, ㅑ	ㅓ, ㅕ	ㅡ
후 설	ㅑ, ㅓ, ㅕ, ㅗ	ㅑ, ㅓ, ㅕ	ㅡ, ㅑ, ㅓ, ㅕ, ㅗ	ㅑ, ㅓ, ㅕ, ㅗ
고	ㅣ, ㅑ, ㅓ, ㅕ	ㅣ, ㅑ, ㅓ, ㅕ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ㅑ, ㅓ, ㅕ
중	ㅓ, ㅕ, ㅑ	ㅓ, ㅕ, ㅑ, ㅗ, ㅛ, ㅜ, ㅠ	없음	ㅓ, ㅕ, ㅑ, ㅗ, ㅛ, ㅜ, ㅠ
저	ㅗ, ㅛ, ㅜ	ㅏ	ㅓ, ㅕ, ㅗ, ㅛ	ㅏ
원 순	ㅑ, ㅓ, ㅕ, ㅗ	ㅑ, ㅓ, ㅕ	ㅑ, ㅓ, ㅕ, ㅗ	ㅑ, ㅓ, ㅕ, ㅗ
비원순	원순 외 전부	원순 외 전부	원순 외 전부	원순 외 전부

이 밖에 j와 w를 류응호(1956b)와 한영순(1964b)는 음운으로 인정하는 데 대하여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은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선행시키는 이중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한다.

2.3. 어음변화

국어의 어음변화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는 田蒙秀(1949b, c), 홍기문(1957), 류렬(1961a, b), 최응제(1961), 김영황(1987) 등이 있다. 田蒙秀(1949b)는 국

어학에서 현상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공통적인 것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는 법칙의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p. 54), 그러한 예로서 18세기 중엽 이전과 이후의 음운변화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18세기 중엽 이전의 ‘지, 지, 지’ 등은 그 이후에 모두 ‘기, 지, 지’ 등으로 변하였으며 (숨>꿈), 이 변화는 사이시옷이 ‘ㅎ’으로 변한 사실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박스꽃’이 ‘박꽃’으로 변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시옷의 그러한 변화는 동시에 어간말 ‘스, 지, 지’이 폐쇄음 ‘ㄷ’으로 실현되는 원인이 되었으며(웃[은]), 그 결과는 어간말에서 ‘ㄷ’과 ‘스’의 대립이 없어지게 하여 18세기 중엽의 철자법에서 모든 ‘ㄷ’, ‘스’ 받침을 ‘스’으로 통일시키고, 다시 그러한 사실은 명사에서 어간말 ‘ㄷ’이 ‘스’으로 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田蒙秀(1949c)는 언어발달의 역사적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하여는, 법칙 속에 음운 경향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p. 6), 그 예로 명사 토(=곡용어미) ‘히, 흘, 혼, 헤, 콰’ 등이 ‘ㅎ’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통일되는 사실을 들고 있다. 즉 15세기에 사용되는 곡용어미에는 1) ‘히, 흘, 혼, 헤, 콰’ 등(길(路): 길히, 길흘, 길혼, 길헤, 길콰 등)과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2) ‘이, 을, 은, 예, 콰’ 등 두 종류가 있었는데, 7-9세기에는 1)이 우세하고, 15세기에는 2)가 우세하다가,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2)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15세기 당시에 ‘지, 지, 지’ 등이 이미 된소리였으며, 어간말에서 ‘ㄷ’과 ‘스’의 대립이 없어지게 된 것은 16세기 초이고, ‘ㅎ’이 어미의 일부가 아니라 명사의 일부이므로(李基文(1978/72: 123, 134, 153)),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체계의 변화에서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개별현상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변화의 법칙을 찾고 법칙 속에 변화의 경향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주목에 값하는 바 있다.

홍기문(1957)은 구개음화현상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15세기에는 개별 단어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나, 17세기 이후에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15세기에 발견되는 구개음화의 예로, ‘질드리다, 질(家), 조고(小), (가)고져’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구개음화를 경험한 것이라는 근거로 각각 ‘길(路), 짓(巢), 혀근, (언)과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단어들에 정말 구개음화를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는 논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상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 중 ‘집’과 ‘짓’, ‘조’와 ‘혀’는 의미상의 관계는 있으나 형태소 구조가 다르다. ‘집’과 ‘짓’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하여 (‘주인) 짓 (거스란)’을 제시하는데, ‘짓’의 ‘스’는 사이시옷이므로 ‘짓’의 ‘스’과는 무관한 것이며, ‘ㅎ’의 구개음화 결과는 오직 ‘스’일 뿐, ‘지’가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조’를 ‘혀’에서 구개음화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류렬(1961a, b)는 모음조화의 1) 성격과 유형, 2) 진행 범위, 3) 기능, 4) 발생, 발전, 동요, 파괴에 대한 역사적 과정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각 항목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5-16세기 국어의 모음조화는 어간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첫음절 모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고모음(으, 우, 어)과 저모음(으, 오, 아) 상호간의 조화이다. 2): 모음조화는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사이에 법칙적으로 적용되며, 합성어 조성의 각 부분 사이나 한자말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3): 모음조화는 문법적 기능(받아:열어:기어)과 어휘론적 기능(갓:갓, 마리:머리 등)을 가진다. 4): 6-7세기 경의 국어 모음은 ‘ㅏ, ㅑ, ㅓ, ㅕ, ㅣ’의 5모음체제로 모음조화는 ‘ㅏ, ㅓ’와 ‘ㅑ, ㅕ’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ㅣ’는 중립모음이었을 것이며, 그 후에 ‘ㅏ, ㅓ’와 ‘ㅑ, ㅕ’의 변종으로 ‘ㅚ’와 ‘ㅜ’가 사용되다가 그것들이 음운화하면서 15세기 국어에서와 같은 7모음체제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언어 내적으로는 ‘ㅚ’가 비음운화하고, 언어 외적으로는 한자말이 대량 침투되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위의 1)과, 4)의 모음조화 파괴 요인에 대하여는 李崇寧(1958/49)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그 외의 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최응제(1961)은 ‘ㅚ’의 음가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15-18세기의 문헌 기록 중 ‘ㅚ’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음가를 후설 비원순 고모음으로 ‘ㅜ’보다 낮은 위치의 모음이라고만 할 뿐, 그 음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헌자료를 통한 ‘ㅚ’의 변화와 방언에서의 ‘ㅚ’의 변화를 고찰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김영황(1987)은 ‘ㅐ, ㅑ, ㅓ, ㅕ, ㅜ’가 전시기에 이중모음임을 논한 것이다. 이것들이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ㅣ’나 ㅓ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주격어미 ‘ㅣ’가 붙지 않으며 처격 ‘에’가 ‘예’로 된다는 것, 동일 환경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서 부사형어미 ‘아/어’가 ‘야/여’로 되며 어미의 ‘ㄱ’이 탈락되는 사실로써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이미 李崇寧(1958/54: 331-432)에 밝혀져 있다.

2. 4. 어음변동

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을 다룬 것으로는 박상준(1949a, b), 류응호(1956d), 원응국(1959, 1961b),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한영순(1964a) 등이 있다.¹⁰

¹⁰ 15세기 성조현상을 다룬 것으로 김영황(1988)이 있지만, ‘ㅣ’나 ㅓ로 끝나는 명사의 어간말 음절이 평성일 때에 주격의 ‘ㅣ’와 통합하면 ‘상성’이 된다가거나 세 개의 ‘겨성’이 연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한 연구에 대하여는 李相億(1990: 129-31)을 참조할 것.

이 중에서 박상준(1949a)는 자음중화, 자음군 단순화, 유기음화, 된소리화, 자음동화 등 어간말 자음이 실현하는 다양한 어음 변동을 기술한 것이며, 박상준(1949b)는 국어에 존재하는 동화현상을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로 구분하여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는 동화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동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오+아서’가 ‘와서’로 되는 것은 ‘ㄱ’과 ‘ㅌ’가 ‘ㄴ’로 합동동화되는 것이며, ‘아이(兒)’가 ‘애’로 되는 것도 합동역행동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에 속한다.

그리고 류응호(1956d)는 활용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음의 교체체를 다룬 것인데, 교체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된다. 그에 의하면, ‘떡+고[mækk’o], 떡+어[mægo]’에서는 무성음 ‘ㄱ(k)’이 유성음 ‘ㄱ(g)’으로, ‘눅+고[눅꼬], 눅+아[노파]’에서는 무기음 ‘ㅂ’이 유기음 ‘ㅍ’으로, ‘짓+고[질꼬], 짓+어[지어]’에서는 ‘ㄷ’에서 ‘ϕ’로 교체되는 것이고, ‘흐르+고[호르꼬], 흐르+어[홀러]’에서는 ‘ㄷ’이 ‘ϕ’로 교체되는 것과 ‘ㄷ’의 첨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pp. 90-93). 이 경우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통합된 음성형의 어간 말자음을 교체의 기준 자음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어음교체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원응국(1959, 1961b)에서 잘못된 것으로 비판된다. 원응국(1959)는 <새자모 6자>를 철자법에 사용한 종래의 견해에 대한 비판 논문인데, 거기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형태소의 동일성과 음운구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의 음운들이 현행 어음법칙(=공시적 음운규칙)에 의하여 설명되거나 국어 어음체계에서 연관성을 이루는 계열을 이룬다면 그 형태소는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어음법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거나 국어 어음체계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형태소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태소이면서도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떡다, 머그니(원문에는 ‘떡으니’임)’에서 종성 ‘ㄱ’과 초성 ‘ㄱ’은 공시적 규칙 관계를 가지므로 ‘떡-, 머ㄱ-’은 같은 형태소이다. 그런데 ‘견다, 거러(원문에는 ‘걸어’임)’에서 종성 ‘ㄷ’과 초성 ‘ㄷ’은 공시적인 규칙 관계를 맺지 않고 공시적 음운규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으므로 ‘견-, 걸-’은 동일한 형태소의 서로 다른 형태이며, ‘갈다, 가니’에서 ‘갈’과 ‘가’ 역시 ‘ㄷ’과 ‘ϕ’은 공시적 음운규칙으로 설명될 수 없으므로, ‘갈-, 가-’는 동일한 형태소의 서로 다른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ㄴ’ 앞에서 어간의 ‘ㄷ’이 탈락되는 것은 공시적 음운규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¹¹

¹¹ 원응국(1961b: 62)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음운교체를 현행적인 것과 비현행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그런데 그러한 구별은 홀로도위치(1954)의 『조선어 문법개요』에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원응국(1961b: 70-71)). 그에 의하면, 교체에는

원응국(1961b)에는 기존에 교체라고 설명된 것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떡+고[떡꼬], 떡+어[머거]’에서 무성음 ‘ㄱ’과 유성음 ‘ㄱ’의 관계는 음운과 음운의 교체가 아니라 변이와 기본형 사이의 관계 즉, 한 음운의 실현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음운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p. 67).

한편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47-91)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어음현상을 어음변화와 어음교체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어음변화는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어음현상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1) 어휘형태소들의 통합,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통합에서 일어나는 어음현상과 2) 어휘형태소 내부에서의 변이음화 현상, 그리고 3) 어음이 다른 어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포함한다. 3)에는 어음동화, 모음조화, 어음의 탈락, 어음의 첨가, 된소리화, 거센소리화, 자음중화 등이 포함된다. 어음교체는, ‘달꼬<달+고>’와 ‘닫는<달+는>’에서 어간의 종성 ‘ㄷ’과 ‘ㄴ’의 관계와 같이, 형태소에서 일어나는 어음론적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어음론적 교체와 역사적 교체가 거기에 포함된다.

어음변화는 제시된 개별 현상들의 발생 환경이 매우 정밀하게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이 구별되지 않고,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녀성’의 어두 ‘ㄴ’이 *j*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나 ‘코+날’이 ‘콘날’로 되는 것은 각각 ‘ㄴ’의 구개음화나 사이시옷과 관련된 통시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시적 현상으로서 ‘쫓는다<쫓+는다>’와 같은 자음동화를 ‘ㄷ-ㄴ’에서 ‘ㄷ’이 바로 ‘ㄴ’으로 되는 것이라 하는데, ‘ㄷ→ㄷ→ㄴ’의 과정을 거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¹²

끝으로 한영순(1964a)는 음운론에서 의미를 배제한 미국의 기술언어학 이론을 비판하는 논문이다. 그에 의하면, 어음은 의미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것을 의미와 완전히 떼어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한 예로 ‘외적(外敵)’과 ‘외적(外的)’을 들고 있다. 전자에서 둘째 음절의 ‘ㅈ’은 된소리로 되지 않으나, 후자에서의 그것은 된소리로 되는데, 그러한 차이는 ‘의미’가 어음과정에 작용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운현상에 작용하는 비음운론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1 계 속

어음론적 교체와 역사적 교체가 있는데, 전자는 현대 한국어에 작용하는 어음론적 규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한국어에서 언젠가 작용한 어음론적 규범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라고 한다.

¹² 이밖에 이 논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崔明玉(1989: 238)를 참조할 것.

3.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어음연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어음체계와 어음현상에 관심이 집중된 제1기(해방 후-1959)와 현대국어의 어음체계와 어음현상에 관심이 집중된 제2기(1960-1965)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음체계와 어음현상에 관심이 집중된 제3기(1986-현재)가 그것이다. 제1기에는 고대국어의 어음체계를 논한 류렬(1958a, b)가, 제2기에는 모음조화를 논한 류렬(1961a, b)와 현대국어의 어음교체를 논한 원응국(1959, 1961a, b) 그리고 어음현상에 대한 비어음론적 조건과 현대국어의 어음체계를 논한 한영순(1964a, b)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임을 알 수 있었다.

제3기의 연구는 대체로 제1기와 제2기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거나 재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에는 아직 주목에 값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제2기 이후 20여년에 걸친 문화어 보급 운동의 영향으로 순수 학술적인 연구가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단일 주제로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북한의 어음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의 배경이 된 언어이론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이론은 조음음성학적 성질을 중심으로 어음 또는 음운을 최소단위로 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음향음성학적 성질을 중심으로 어음 또는 음운을 변별적 자질의 묶음으로 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는, 한영순(1964b)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별적 자질에 의한 생성음운론적 관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관점들에 의한 어음체계에 대한 논의도 견해의 일치가 보이지 않으며, 설정된 변별적 자질(북한의 술어로는 음운론적 구별 표식)은 체계를 이루는 어음 또는 음운들의 구별단을 위한 것일 뿐, 그것들에 의하여 음운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어음연구의 성과와는 달리,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남한의 음운연구의 성과는 대조적이다. 남한에서는 1940년대에 구조주의 언어학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음운’과 ‘음성’,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을 구별하였으며, 음운현상을 다른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¹³ 1950년대에는 音價論을 포함한 音韻史 연구가 중심이

¹³ 李崇寧(1939,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1940, “ㄱ·ㅇ音攷” 등)이 그러한 연구에 포함된다. 제시된 논문의 출처와 국어 음운론 연구사 및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과 음운연구에 대하여는 李秉根(1985)와 崔明玉(1989a)를 참조할 것. 이하 동일함.

되었고,¹⁴ 1960년대에는 주로 중세국어의 음운체계 및 음운현상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¹⁵ 1970년대에는 음운규칙의 정밀화와 음운현상의 설명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국어 음운연구사에 있어서 지난 20년은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표된 연구 성과는 몇 개의 예로써 대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끝으로 남북한의 음운과 어음연구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한의 음운연구에는 일반언어학에서 창안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나, 북한의 어음연구에는 제3기 이후로는 전혀 일반언어학 이론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남한에서는 ‘음성학’과 ‘음운론’을 분명히 구별하되, ‘음운론’이 음운체계의 확립과 음운현상의 기술을 위하여 음성적 자질들을 활용하는 ‘음소’ 내지 ‘형태음소’ 층위의 연구임에 반하여, 북한의 ‘어음론’은 ‘음성학’과 ‘음운론’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로 ‘음성형’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다. 셋째로, 남한의 음운연구는 ‘음운체계, 모음조화, 구개음화, 자음동화, 움라우트, 음장, 성조’ 등 개별 주제에 대한 설명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의 음운연구는 그러한 류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음운연구 또는 어음연구에 대한 남북한의 이질화는 이러한 차이를 해결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어음연구 논저목록〉

- 1949, 전몽수, ‘訓民正音의 音韻組織,’ 조선어연구 1-1(창간호).
 1949a, 박상준, ‘조선말 당소리의 발음습관,’ 조선어연구 1-1(창간호).
 1949, 김종오, ‘ㅇ音攷,’ 조선어연구 1-2.
 1949a, 전몽수, ‘朝鮮語 音韻論1,’ 조선어연구 1-3.
 1949b, 전몽수, ‘朝鮮語 音韻論2,’ 조선어연구 1-4.
 1949, 홍기문, ‘三國時代의 朝鮮漢字音과 우리의 語音,’ 조선어연구 1-4.
 1949c, 전몽수, ‘朝鮮語 音韻論3,’ 조선어연구 1-6.
 1949b, 박상준, ‘말소리의 동화,’ 조선어연구 1-7.

¹⁴ 李崇寧(1949, “애, 에, 외”의 音價變異論), 金敏洙(1953, “各字並書音價論”), 허웅(1955, “傍點研究”), 安秉禧(1957, “重刊杜詩諺解의 t 口蓋音화에 대하여”), 李基文(1959, “十六世紀의 國語研究”) 등이 그러한 연구에 포함된다.

¹⁵ 음운체계의 연구로는 金完鎭(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李基文(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허웅(1968,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칸”) 등이 있으며,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 金完鎭(1963,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대하여”) 등이 있다.

- 1956a, 류응호, '조선어 어음론 강의 (1),' 조선어문 2.
 1956b, 류응호, '조선어 어음론 강의 (2),' 조선어문 4.
 1956c, 류응호, '조선어 어음론 강의 (3),' 조선어문 5.
 1956d, 류응호, '조선어 어음론 강의 (4),' 조선어문 6.
 1957a, 홍기문, '조선어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역사적 발달,' 조선어문 1.
 1957b, 홍기문, '정음자에 반영된 15세기의 어음 현상,' 조선어문 3.
 1958a, 류렬, '상고 조선말의 어음 체계,' 조선어문 4.
 1958b, 류렬, '상고 조선말의 어음체계(2),' 조선어문 6.
 1959a, 김영황, '조선어 자음체계에 대한 역사 어음론적 연구 시론,' 조선어문 6.
 1959, 원응국, '현행 철자법의 받침과 음운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어문 3.
 1959b, 김영황, '현대조선어 자음체계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어문 4.
 1960,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어음론,' 조선어문법(동경: 학우서방).
 1960, 원응국, '조선어 음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조선어문 2.
 1960a, 리세용, '조선어 어음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조선어문 5.
 1960b, 리세용, '조선어 어음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조선어문 6.
 1961a, 원응국, '현대 조선어의 음운과 음운 교체에 대한 간단한 시고,' 조선어학 2.
 1961b, 원응국, '현대 조선어의 음운과 음운 교체에 대한 간단한 시고 (2),' 조선어학 3.
 1961a, 류렬, '조선말의 모음조화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조선어학 2.
 1961b, 류렬, '조선말의 모음조화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2),' 조선어학 3.
 1961, 최응제, '<·>에 대한 고대 언어학자들의 견해,' 조선어학 4.
 1963, 김용구, '복합문의 접속 수단으로서의 억양,' 조선어학 1.
 1963, 신정아, '조선어의 소음적 자음의 특성,' 조선어학 1.
 1964a, 한영순, '어음과 의미의 연계 문제에 대하여,' 조선어학 1.
 1964a, 조현영, '우리 말 악센트의 구성과 변화(1),' 조선어학 5.
 1964b, 조현영, '우리 말 악센트의 구성과 변화(2),' 조선어학 6.
 1964b, 한영순, '현대 조선어 어음체계 수립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어학 6.
 1964, 신정아, '조선어 자음체계의 몇 가지 특성,' 조선어학 2.
 1965, 신정아, '조선어 자음의 결합적 특성,' 조선어학 2.
 1965, 한영순, '음운과 그 실현의 개념에 대하여,' 조선어학 3.

- 1965, 원응국, '음절과 단어의 발음과 관련되는 몇 가지 측면,' 조선어학 3.
 1986, 김백련, '우리 말 입천장소리와 어음변화류형들,' 조선어문 3.
 1986, 양하석, '가장 작은 운률학단위로서의 운률소문제,' 조선어문 3.
 1987, 려종철, '훈민정음의 <△>는 음운이 아니라 어음의 특수한 표기,' 조선어문 1.
 1987, 김영황, '<ㅞ, ㅟ, ㅢ, ㅣ, ㅤ> 등 모음계렬의 역사적변화에 대하여,' 조선어문 2.
 1987, 김성근, '조선어 홀모음에 대한 음향학적 및 청각적 고찰,' 조선어문 3.
 1987, 리상호, '16-17세기 조선말 말소리 발전에서의 몇 가지 문제,' 조선어문 4.
 1988, 려종철, '<빙>은 음운이 아니라 어음의 특수한 표기,' 조선어문 1.
 1988, 김영황, '15세기 중세조선어의 성조현상에 대하여,' 조선어문 2.
 1989, 김백련, '<디→기>류형의 어음변화문제,' 조선어문 1.
 1989, 양하석, '조선말 홀모음체계의 음향학적 성격,' 조선어문 4.
 1990, 김성근, '조선어 단어의 악센트 문제,' 조선어문 1.
 1990, 양하석, '조선말 자음체계의 음향학적 특성,' 조선어문 2.
 1990, 강진철, '문화어역양의 높낮이선에 대하여,' 조선어문 4.

참고문헌

- 곽충구(1990) '북한의 방언연구,'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지식산업사.
 金敏洙(1991) '북한의 國語研究史,'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I, 도서출판 녹진.
 리동빈·양하석(1986) 언어학사전(2)(현대조선어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박영준(1991) '북한의 방언연구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I, 도서출판 녹진.
 신지영(1991) '북한의 음운론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I, 도서출판 녹진.
 李基文(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李基文(1978/72)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李秉根(1985) '第1章 音韻論의 研究,' 國語學研究史(高永根 編), 學研社.
 李相億(1990) '聲調,'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李崇寧(1958/49) '母音調和研究,' 音韻論研究(再版), 民衆書館.
 李崇寧(1958/54) '15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音韻論研究(再版), 民衆書館.
 崔明玉(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對하여,' 國語學 14.
 崔明玉(1989a)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국어음운론 연구,' 국어국문학과 구미 이론, 지식산업사.

崔明玉(1989b)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조선어문법 I」〈어음론〉,' 周時經學報 4.

Saussure, F. de (1959/1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by Wade Bas-kin), New York: The Philosophical Library.

ABSTRACT

North Korean Phonological Research

Myung-ok Choi

Post-1945 North Korean phonological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Period I (1945-1959) dealt chiefly with the phonological system and phenomena of Old and Middle Korean, Period II (1960-1965) with that of Modern Korean, and Period III (1986-present) with that of Middle and Modern Korean.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n phonological system, which is the most studied single topic, shows a marked progression in background linguistic theory. Initial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linguistics, focussing on articulatory phonetic qualities and taking the phoneme as the smallest unit; later research took the stance of structural linguistics, focussing on acoustical phonetic qualities and analyzing phonemes as bundles of distinctive features. One work (Han Young-Soon, 1964b), goes on to show generative phonetics involving distinctive features. Unfortunately, there is no concensus of opinion in the above viewpoints on the phonological system, and the distinctive features proposed serve only to differentiate the various phonemes that make up the system, and are not useful for explaining phonological phenomena.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phonological research in North and South Korea lie in three general areas. First, whereas in South Korea new theories of general linguistics have been eagerly accepted, no such theor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North Korean phonology since the beginning of Period III. Second, whereas in South Korea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honetics and phonology, phonology being research on the level of the phoneme using phonetic features for the delineation of the phonological system

and the description of phonological phenomena, in North Korea the two are not distinguished and the main object of research is the “phonetic form.” Third, whereas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in-depth research into such individual topics as the phonological system, vowel harmony, palatalization, consonant assimilation, umlaut, vowel length, and tones, there has been almost none of this kind of research in North Korea.

The resolution of differences in these areas will make pho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more compatible.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